

5·18 망언에 우경화 심화 흥행 안 되는 한국당 쏠대



지난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총청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끝낸 당 대표 후보자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손을 잡고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새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5·18 정국 후폭풍이 전대(全大) 효과까지 잠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아편에서 유력 당권 주자로 불리는 거물급 잠룡들이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면서 여느 전당대회보다 중량감이 컸는데도 예기치 못한 5·18 망언이 큰 파

한국당은 설 연휴 전인 2주 전과 비교해 2%p 떨어진 19%로 집계됐다.

당내에서는 5·18 망언에 등을 돌린 국민에게서 전대까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경선 첫 TV 토론에서 "정치는 빠른 결단. TV 밭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앞으로 당 대표가 되면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처리를 하겠다"며 비대

대통령은 1983년 5·18을 기념하기 위해 23일간 단식투쟁했고, 문민정부 시절인 1996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부친의 노력이 퇴색될 것을 우려한 협철씨는 "수구반동적인 집단 속에 개혁보수의 상징인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자체가 어릴 수 없는 빗판지간(氷炭之間·홀이 서로 어긋나 맞지 않는 사이)이라며 "한국당 전당대회가 수구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아버지 사진은 그 곳에서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세(勢) 파시에 나서 당의 우경화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극우 지지자들은 합동연설회장을 쫓아다니며 강성우과 김진태 의원을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이번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태극기부대의 조직적인 입당 의혹도 불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도층이나 부동층은 물론 보수권 내에서도 극우화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만큼 전당대회가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지 못한 채 태극기부대를 중심으로 한국당의 '뒤통' 대구·경북(TK)에서만 주목받으면 '수구 보수' 꼬리표가 붙은 'TK당'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한 당지지는 "실제 당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는 후보의 지지자들이 합동연설회장에서 결집해 마치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비치는 게 부당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전당대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5·18 정국을 최대한 끌고 가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野)3당과 공동전선을 구축한 여권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5·18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동조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도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를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추천을 재고해보라고 귀뜸을 주거나, 다른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5·18 폄훼에 일부 동조까지...전당대회 흥행 적신호
순항하던 당 지지율 꺾여...지도부 극장 대응도 도마
김현철 "수구반동 회귀...당에서 아버지 사진 떼리"
태극기부대 극성도 부담...극우화 거부감 점점 커져
전국적 돌풍 일으키지 못하고 '그들만의 잔치' 전략

장을 불러오면서 당 전체가 점점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 비대위는 5·18 비하 발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이종명 의원에 게 제명을 의결했지만, 당대표·최고위원으로 전당대회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명분으로 징계를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대 흥행만을 고려한 폄수리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도부의 극장 대응도 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악수(惡手)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12일~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위의 극장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 전대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끊이지 않는 것도 한국당의 골칫거리다.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윤영석 의원은 지난 13일 KBS '여의도 시사건전'에 출연해 "1980년 당시 북한군이나 간첩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생생한 증언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며 이종명 의원이 제기한 북한군 개입설을 또다시 꺼내 '망언'에 동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협철씨는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진

'5·18유공자 문제인·유시민·박원순' "이런 카톡 받으셨나요?"

문제인 대통령,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5·18 유공자 명단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보수우익 층을 중심으로 울려 퍼지는 '이름을 올리면 특별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정치인 측은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목소리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커졌다. 독립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시중에 나도는 5·18 유공자 명단에는 문 대통령, 유 이사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주미애·심재권·민병두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거론됐다.

이를 다룬 영상이나 메시지는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5·18 유공자들이 5·18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 발의로 과도한 혜택을 누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자녀 수업료도 면제하고 병원비·TV시청료도 대신 내준다"며 "가스세·전기세 감면 및 국내선 항공기 요금 반값 혜택 병역 면제, 취업 시 10% 가산점 등 혜택을 누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명단 속에 언급된 이들 상당수는 애당초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의 측근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 이사장이 5·18 유공자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안 그래

이해한 대표와 민병두 의원의 경우 실제 5·18 유공자다. 하지만 '귀족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의 경우 취업 시 면접의 5~10% 가점 혜택이 적용되지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병역 면제나 연금, 가스비 등 혜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명예만 받으면 되는 거라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은 전액 사회에 환원했다"면서 "인터넷

여권 유력 정치인 다수 5·18 유공자 로 곤장 특혜 주장

문제인·박지원·유시민·박원순 등 '5·18 유공자 아니냐'

박지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명단은 명백한 가짜뉴스"

도 그런 소리가 들려 혹시나 해서 다시 유 이사장께 여쭙봤더니 (5·18 유공자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5·18 유공자였다면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유공자가 아니다"면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명단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한숨을 쉬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뉴시스에 "문 대통령은 5·18 유공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 시장 측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상에 들고 있는 전기세 감면 등도 다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5·18 명단 공개가 2차 가해를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의원은 "5·18 유공자 심사가 엄격하다면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왜 유공자가 됐냐고 (반대 측이) 시비를 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공자 여부를 밝히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하는 여야 대표단 미국 방문 여야 대표단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